

칭하이 무상사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The Dogs in My Life*

베스트셀러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의 작가



칭하이 무상사  
칭하이 무상사  
칭하이 무상사

칭하이 무상사



이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동물 친구들이  
어떤 삶을 누려야 하는가를 보여 주는 사례들입니다.  
땅에 살든 하늘에 살든 혹은 바다에 살든  
동물들은 우리 인간이 바라는 삶과 똑같이  
사랑과 보호를 받고 소중히 돌봐져야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하늘이시여, 친애하는 인과의 왕이여,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소서.  
궁지에 처한 그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듯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차마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저 위 천국에는 수많은 곳들이 있으니  
그들을 모두 위로 데려가 사랑을 베푸소서.  
이것이 모든 존재들을 위해 올리는 저의 작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과 자비심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서로 화목하게 공존하기를.  
모두 사랑하며, 서로 돌보고 용서하기를.

~ 칭하이 무상사


10마리 행운의 개들(Benny, Lucky, Happy, Hermit, Goody, Boyo, Lady, Pomas, Zolo, Hally) 공저

~ 경서 팀 엮음

우리가 사랑하는 ‘인간’, 또는 간단히 말해 우리 ‘엄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하이 무상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동물들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 대해 타고난 크나큰 사랑을 보임으로써 이미 성인이 될 운명의 징조를 보였답니다.

깨달은 스승이 되고 난 후 그녀는 관음법문(내면의 빛과 소리에 집중하는 고대의 명상법)을 가르치고 채식은 장려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세상 사람의 반만이라도 채식하면 지구상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지요. 먹거리를 위해 동물들을 죽이는 것이 폭력적인 분위기를 낳는데, 이것이 다시 인간들 간에 폭력과 전쟁, 불행을 싹트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동물들의 삶과 인류의 삶은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답니다.

이 성인(聖人)을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녀가 스승일 수도 있고 위대한 교사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동물들에게는 그저 사랑하는 엄마일 뿐이에요. 그녀는 엄마가 하는 일들은 다 해요. 이를테면 우리를 씻기고, 우리에게 음식을 해주고, 노래를 불러 주고, 산책시켜 주고, 우리와 놀아 주지요.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 친구들이랑 그녀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동물 하나하나가 우리처럼 푸짐한 음식과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고 사랑을 받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듬뿍 담아  
인간과 모두에게.

# BENNY

Benny, '공식적으로' 내 최초의 개. 말티즈.

보호 기질이 강하고 사랑이 많고 충직하며 들러붙습니다(사람에게 달라붙는 것을 좋아함). 정식 학위를 받은 학자입니다.

별명: 대장, 알파, 만형, 학자.

그는 K-9 사관학교라는 애견 훈련소를 졸업했습니다. 그의 품행과 교양은 학교 측에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가 졸업을 하게 되어 내가 그를 집에 데려오기 위해 찾아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선생님이 누우라고 하자 누웠습니다. 내 팔에 안기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선생님이 '일어나서 걷는 걸 허용하지 않아서' 훈련된 병사처럼 조금씩 조금씩 기어서 내게로 왔습니다. 그가 졸곧 '포복' 자세로 마침내 내게 도착하자 선생님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건 가르친 적이 없었는데!"

Benny는 매우 자비롭고 상냥합니다. 누군가 슬퍼하면 다가가서 그 사람이 기운날 때까지 위로해 주고 사랑해 줍니다. 내 시자 중 한 명은 우는 척 연극을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Benny는 그에게 다가가 여기저기 키스해 주곤 했습니다. Benny는 특히 어린이들과 다른 동물들을 좋아합니다. 다친 새 같은 걸 발견하면 내가 와서 돌봐 줄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지켜주지요. 그는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워서 다친 동물들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채식 개껌을 미친 듯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내가 볼일 때문에 Benny를 집에 두고 가느라 달랠 요량으로 개껌을 주면 안 먹고 팽개쳐 둔 채 한쪽 구석으로 들어가서 부루퉁해 있습니다! 그는 내가 들어오라고만 하면 언제나 편안한 자기 소파 침대를 제쳐 두고 내 자리나 침대로 슬금슬금 기어들어 옵니다.

내가 집에 올 때마다, 또는 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할 때



마다 그는 천국에라도 온 듯 신나서 내 침대나 소파, 침  
낭, 바닥 등 온갖 곳을 마구 굴러다닙니다.

그는 사랑의 화신입니다. 높은 차원의 영혼이지만 나를  
사랑하고자 겸손하게 작은 개 노릇을 하고 있는 것뿐이  
랍니다.





처음 저뿐이었어요.  
유일무이한 Benny.





엄마! 나 여기 밖에 있어요!





이 행복하는 누구일까요?





5개월 때 찍은 내 공식 사진





가장 사랑하는 하늘이시여, 친애하는 인과의 왕이여,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소서.  
궁지에 처한 그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듯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차마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저 위 천국에는 수많은 곳들이 있으니  
그들을 모두 위로 데려가 사랑을 베푸소서.

- 칭하이 무상사 -

 04890  
9 788996 079514  
ISBN 978-89-960795-1-4 04890  
ISBN 978-89-960795-0-7 (전2권)